

안녕하세요 건축학교 2조를 맡게된 이승철 보조선생님 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만나는 첫 시간 이였습니다.

1교시의 시작으로 안우성 건축가님의 소개와 함께 아이들이 건축과 친해질 수 있는 선생님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건축이란 무엇이며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집을 짓기 위해 고려해야 할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은 어색했던 모습은 전혀 없었고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본인들이 연상된 이야기를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3교시- 건축가가 하는 일 알아보기

첫 시작은 건축주가 되어보는 것 이였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의 그림 이나 혹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이 생각했던 집, 원하는 바를 옆 친구(건축가)에게 설명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이야기(건축주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그에 맞는 방들과 건물의 모양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조는 3명이 한 모듬이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성경이는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여 넓은 축구장과 축구공을 형상화 하여 원형의 거실을 원했습니다. 또한 계단 난간의 끝부분에 축구공 모양을 만들어 항상 만질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디테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형빈이는 조에서 가장 학년이 높은 만큼 여유가 넘치고 재치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불어가고 본인이 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형빈이도 마찬가지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게임을 좋아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방과 거실은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좀 더 창의적인 생각과 지금의 기본이 훗날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끔 지도해주었습니다.



지호는 같이 왔던 친구와 떨어져 많이 아쉬웠는지 표정이 밝지 않아 걱정이 됐습니다. 2,3교시가 되어 성경이와 형빈이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 주어 지호 또한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옥상에 식물이 있는 정원과 자기만의 비밀공간을 원했습니다. 가장 건축적으로 생각하였고 섬세하고 집중도가 높은 아이였습니다. 또한 만들기에 디테일한 면을 살려서 잘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섬세하게 고무찰흙으로 자신만의 방을 꾸미는 것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땅에 함께 밑그림을 그리는 중 입니다. 아이들 모두 처음이라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담은 집을 스케치하고하고 만들기까지 고민하였고 어떤 재료를 쓸지에 대해서 이

야기 나누었습니다.





자신들 만의 생각이 담긴 집을 구현해가는 중입니다.



처음이라 고민도 많았고 시간이 부족했던 터라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 했습니다.

처음이지만 잘해준 아이들이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다음주는 신문지로 건물의 기본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좀더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첫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보람있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